

당신의 상상엔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새로운 L.E.T.H.O.S 시스템 선보여



지난 5월 9일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 www.gmp.co.kr)는 광주에 위치한 본사에 우수고객을 초청해 GMP의 새로운 통합 솔루션인 'GMP L.E.T.H.O.S 시스템'을 소개하고, 신제품 Pioneer 5000BC를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초청행사에는 국내 지엠피 우수고객사들이 대거 참여해 본사 강의실을 가득 메웠으며, 김양평 대표이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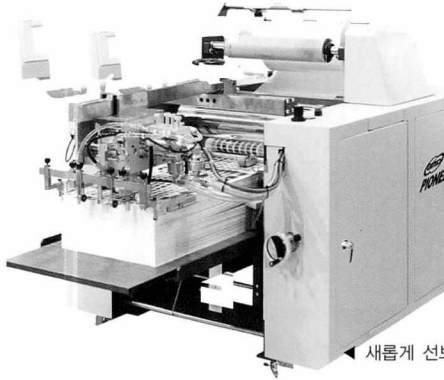
이날 강연에 앞서 김양평 대표이사는 “작년 Pioneer 시리즈의 목표는 ‘자동급지-씨멀라미네이팅-엠보싱-커팅-적재’를 한 번에 초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서 “올해 ‘스크래치 방지 필름(발명특허 획득)’, ‘엠보무늬 보호용 라미네이팅 필름’ 등 특수필름을 더해 완성된 시스템인 ‘L.E.T.H.O.S’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L.E.T.H.O.S’는 라미네이팅(Laminating), 엠보싱(Embossing), 전사



▲ 신제품 Pioneer 500BC를 시연하고 있는 김양평 대표이사

▶ Pioneer 500BC를 이용해 L.E.T.H.O.S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우수고객으로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기계 작동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있다.



새롭게 선보인 Pioneer 5000BC, 시간당 6000장의 작업속도를 자랑한다.

	Pioneer 5000BC	Innovator 1060L(출시 예정)
인쇄물 규격	폭 500×700mm	최소 300×300mm, 최대 1060×1200mm
라미네이팅 속도	30m/min - 500×700mm (시간당 2500장)	120m/min - 1,000×700mm (시간당 10,000장)
급지 및 재단속도	6000장/h	12,000장/h
최대속도 최소길이	300mm	

(Transferring), 홀로그램(Hologram), 오버코팅(Overlay Coating), 특수효과(Special Effect)등을 GMP Pioneer 한 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이들 머릿글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다.

지엠피의 새로운 시스템 L.E.T.H.O.S

GMP L.E.T.H.O.S 시스템은 인쇄물의 다양한 표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엠피의 발명특허 특수 필름인 Micronex(over-layer Coating 필름), Emboright(Embossing 가능한 필름), Anti-scuff Matt(스크래치방지필름), Polynex(BOPP Base 유·무광 필름) 및 Nylonex(Nylon Base 유·무광 필름) 등을 이용해 Pioneer 시리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크게 라미네이팅(laminating), 엠보싱(Embossing), 전사(Transferring), 홀로그램(hologramming), 오버코팅(Over-layer coating), 특수효과(Special Effect)로 나뉜다.

미래를 개척하다. Pioneer 5000BC, Innovator 1060L

이번 세미나에서 지엠피는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신제품들을 소개, 예고했다. 신제품 Pioneer 5000BC와 현재 개발 중인 Innovator 1060L이 바로 그것이다.

Pioneer 5000BC는 최근 개발 완료된 신제품기계로, 기존의 써멀라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며,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 디지털 주문형 인쇄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종류의 디지털 인쇄시스템(On-Demand)에 최상의 라미네이팅 솔루션을 제공한다. 속도는 30m/min으로 대량작업이 가능하며, 고속 전자동 급지, 라미네이팅, 절

단 및 자동적재가 쉽게 이뤄진다.

이밖에 PLC 및 서보제어시스템을 탑재하여 정밀함과 내구성도 한 차원 높였다.

현재 개발 중인 Innovator 1060L은 광폭의 고속형 써멀라미네이터로 디지털 주문형 인쇄시스템을 위한 라미네이팅 시스템이다. 고속 전자동 급지, 라미네이팅, 절단 및 자동적재, PLC 및 서보 제어시스템을 탑재하여 정밀함과 최고의 내구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개발 중에 있어 9월 KIPES에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내년쯤에는 양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 국내고객의 중요성

지엠피는 앞으로 대리점체제를 통해 신속한 필름 공급과 유통비 절감을 이룬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계획으로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게 된 대리점을 우수고객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양평 대표이사는 “앞으로 대리점의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지만, 지엠피와 고객사 서로의 이익이 보장되는 적정선이 될 것”이라고 말해 협력사 모두의 이익 창출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함께 적정 작업비용이 어느 정도가 적정인가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샘플 필름 제공에 관한 대략적인 이야기도 오고갔다.

이날, 김양평 대표이사는 “국내 시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의 선전도 허상에 불과하다”며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시간의 절반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업체 요구사항이 곧 세계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뜻이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